



EAI 여론브리핑 제34호

[엠바고 6월 23일 21:01 세계표준시, 한국 시간 6월 24일 오전 6시]

WPO • EAI • 경향신문 공동
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“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”
WORLDPUBLICOPINION.ORG

제8차 이혼여성 · 미망인 차별

이혼여성 · 미망인 차별 문제 나라별 인식 차
한국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

대표집필 :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



[참여국가 : 18개국]

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
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
북남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
중동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
아프리카 나이지리아

※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개국 17,595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개한다.

※ 조사일시 : 2008년 1월~5월/ 한국조사 “한국리서치”

[발표 주제]

1. 세계인 10명 중 네 명, 이혼여성 · 미망인 차별 존재
2. 한국, 여성 및 젊은 층이 이혼여성 · 미망인 차별에 민감

[발표계획]

차수	한국발표	주제	비고
1차	3월 8일	인권1. 여성권과 양성평등	3월 8일 세계여성의 날
2차	3월 20일	인권2. 중국의 티베트 정책	6개국 조사
3차	3월 22일	인권3. 인종차별	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
4차	4월 21일	현안1. 오일쇼크의 위협	국제유가 폭등
5차	5월 2일	인권4. 언론의 자유	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의 날
6차	5월 13일	현안2. 민주주의의 위기	민주주의/ 여론/ 거버넌스 인식 비교
7차	6월 16일	현안3. 세계지도자 평가	글로벌/지역 지도자 신뢰도 평가
8차	6월 19일	인권4. 낙태	낙태권에 대한 세계인식
9차	6월 23일	인권5. 미망인, 이혼여성 차별	6월 23일 세계 미망인의 날



프로젝트 개요

“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(PIPA)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(<http://www.WorldPublicOpinion.org>)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(UNHCHR)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. 동아시아연구원(EAI원장 :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, <http://www.eai.or.kr>)과 경향신문(<http://www.kyunghyang.com>)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. 이번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.”

UNHCHR(유엔고등인권판무관)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(양성평등/인종차별/언론의 자유/고문/낙태/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)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.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(석유에너지 자원/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/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/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/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/ 중국과 티벳)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.

2008년 3월 7일

경향신문

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

한국조사 개요

- 전체기획 : 월드퍼블릭오피니언(WorldPublicOpinion.org Network)
- 한국기획 : 동아시아연구원(EAI) • 경향신문
- 실 사 : 한국리서치
- 조사일시 : 2008년 2월 10일~11일
- 조사대상 :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(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, 제주 제외)
- 표 본 : 600명
- 표본추출 : 층화 무작위 추출(Stratified Random Sampling)
- 표집오차 : 95%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± 4.0%
- 조사방법 : 전화면접조사
- 가 중 치 : 지역(권) • 성별 • 세대 가중치 부여
- 연 구 팀
 - 연구팀장 : 이내영(EAI 여론분석센터 소장, 고려대 교수)
 - 연 구 팀 : 이숙종(EAI 원장, 성균관대 교수) • 서상민(EAI 연구기획국장)
 - 이근수(EAI 거버넌스센터 부소장) • 정한울(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)
- 간 사 : 곽소희(EAI 연구원)
- 연구지원 : Lisa Collins(EAI 인턴) • Matt Lauer(EAI 인턴)

관련문의 : 정한울(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) 02-2277-1683(내선102)



주제1. 세계 이혼여성 · 미망인 차별 인식 비교

17개국 열 명 중 네 명은 이혼여성 · 미망인 차별 있다

- 한국은 열 명 중 여덟 명, 세계1위
- 이슬람 국가에서 사회적 차별 문제 인식 높고
- 서구 선진국, 구 소연방 국가, 인니 · 태국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

월드퍼블릭오피니언(WPO) · EAI ·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세계 17개국 17,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 세계인의 열 명 중 네 명 이상이 이혼여성이나 남편을 잃은 미망인 들은 다른 여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. 이혼여성에 대해서는 17개국 응답자의 46%가 다른 여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, 미망인에 대해서는 43%가 그렇다고 답했다.

국가별로 보면 한국, 터키, 팔레스타인, 이집트 등 한국을 제외하면 회교 영향이 강한 국가에서 미망인이나 이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. 이혼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은 한국(82%), 이집트(80%), 터키(72%), 아제르바이제(54%), 팔레스타인(53%), 이란(51%) 순으로 높았다.

반면 미망인 차별에 대해서는 한국(81%), 터키(70%), 팔레스타인(61%), 나이지리아(58%), 중국(54%)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다. 주목할 점은 한국이 미망인이나 이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.

한편 프랑스, 영국,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의 구소연방 국가, 인도네시아,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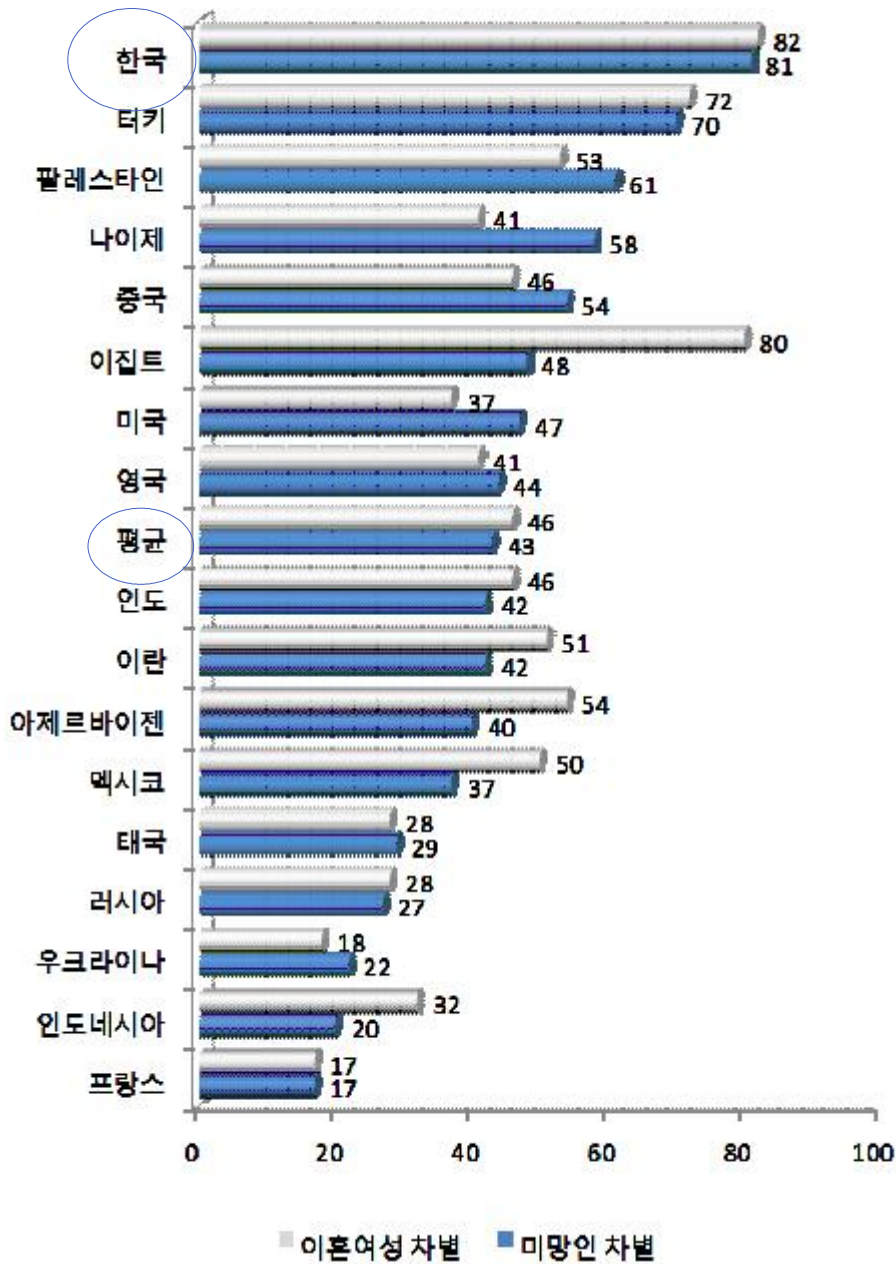
이혼 여성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는 인식은 프랑스에서 17%로 가장 낮았고, 미국은 37%, 영국은 41%로 나타났다. 미망인에 대해서도 프랑스인은 17%만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, 영국 44%, 미국 47%로 나타났다.

한편 구소연방 소속 국가인 이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문제라는 답변이 우크라이나에서 18%, 러시아에서 28%에 그쳤다. 미망인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22%, 러시아에서 27%만이 다른 여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.

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, 태국이 혼자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혼여성 차별을 문제시하는 응답은 태국 28%, 인도네시아 32%로 다른 아시아 나라인 한국(82%)이나 중국(46%), 인도(46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. 미망인 문제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(20%), 태국(29%)이 한국(81%), 중국(54%), 인도(42%)에 비해 좋은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.



[그림1] 이혼여성, 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
매우 심각한 문제 + 어느 정도 문제(%)





주제2. 여성, 젊은 층이 미망인 · 이혼여성 차별에 민감

- 한국사회, 미망인 불리한 대우 받는다 81%, 남성 76%, 여성 87%
- 이혼여성 불리한 대우 받는다 82%, 남성 73%, 여성 90%
- 젊은 세대일수록 불이익에 대한 우려 커

최근 TV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미망인 혹은 이혼여성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. 부분적으로 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그리고는 있지만 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고,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갖는데 큰 장애가 되지 못한다. 최근 모 여성 연예인이 이혼 후 자녀에게 자신의 성을 갖게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.

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혼여성이나 미망인이라는 이유로 짊어져야 할 짐이 적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. 응답자의 30%가 미망인이 다른 여성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, 51%가 약간 불리하다고 응답했다. 한편 별로 불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16%,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2.2%에 불과했다. 남성의 24%는 매우 불리하다고 답했고, 52%는 약간 불리하다고 답했다. 여성은 37%가 매우 불리하다는 평가였으며 50%가 약간 불리하다고 응답하여 남성보다 10%p 가량 높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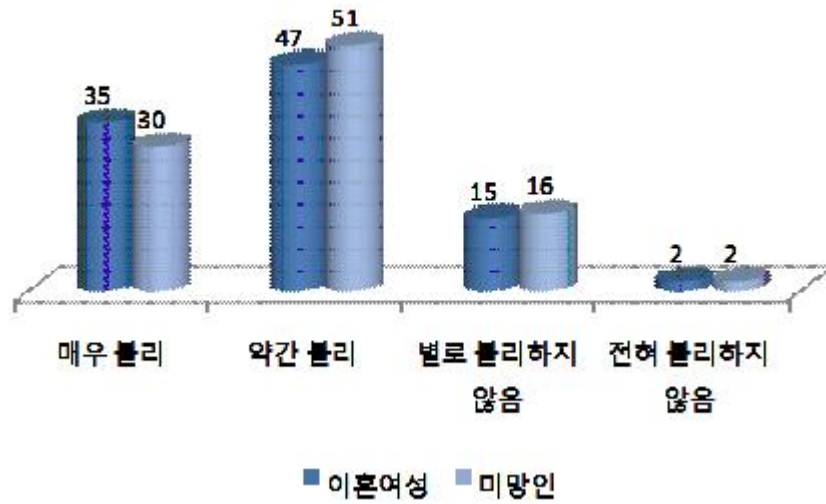
한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혼한 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물론 다른 여성에 비해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. 여성은 45%가 매우 불리하다고 답했고, 45%는 정도는 어느 정도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. 남성은 25%만이 매우 불리하다, 49%는 약간 불리하다고 답해 남자들도 이혼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. 그러나 그 강도는 여성이 느끼는 것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는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세대별로 보면 20대, 30대의 젊은 층일수록 미망인 혹은 이혼한 여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혼여성의 경우 “매우 불리할 것”이라는 응답이 20대에서는 41%였고, 30대 40%, 40대 39%, 50대 이상에서는 22%로 낮아진다. 반면 남편이 먼저 사망한 여성에 대해서는 20대 41%, 30대 31%, 40대 32%, 50대 이상에서는 22% 수준이었다.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면서 이에 못 미치는 사회현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젊은 층에서 이혼율이 크게 늘면서 이혼여성의 사회적 차별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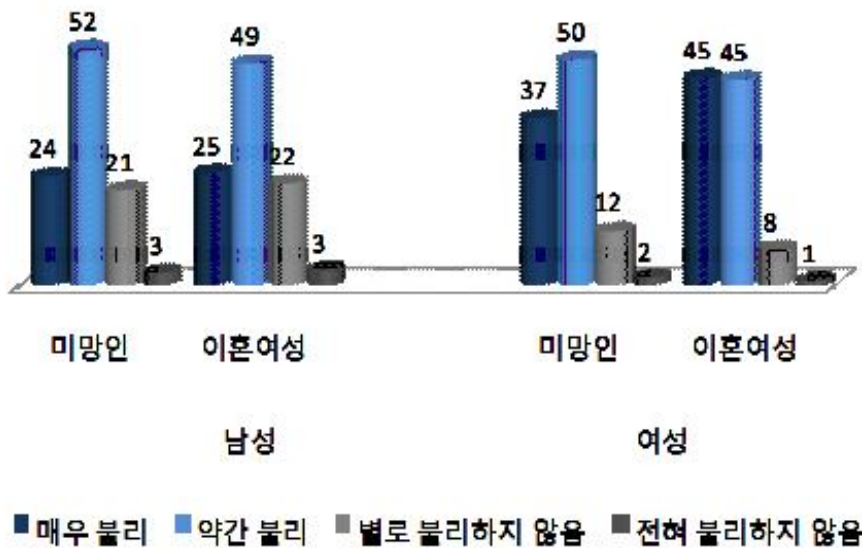
한국에서도 호주제의 폐지를 계기로 이혼 부부의 자녀가 아버지 성이 아닌 어머니 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여성의 상속과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.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적,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혼자 된 여성이 직면해야 할 사회적 냉대와 불이익은 여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. 한국 현실에서 혼자 된 여성은 TV 드라마처럼 낭만적일 수 없다는 점만큼은 명확해 보인다.



[그림1] 미망인 · 이혼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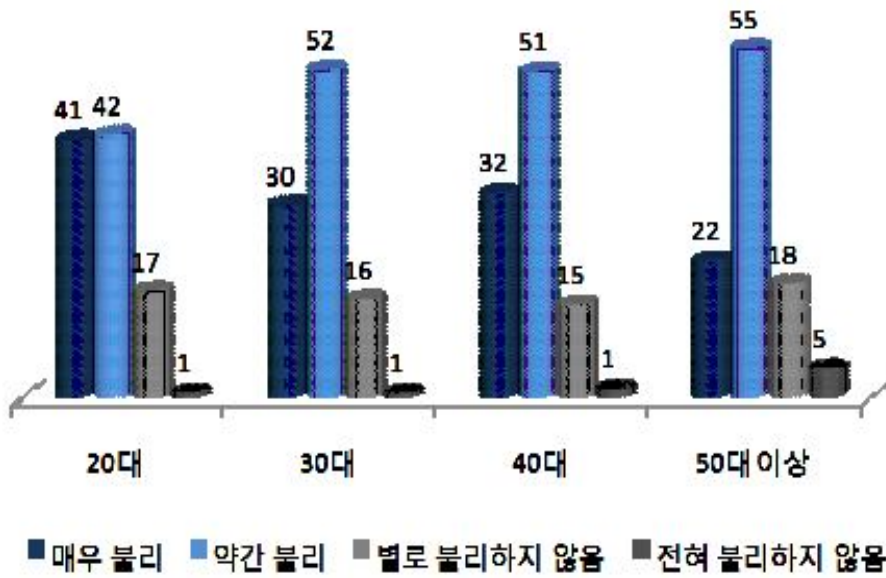


[그림2] 성별 미망인/이혼여성 차별인식(%)





[그림3] 미망인 차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(%)



[그림4] 이혼여성차별에 대한 세대별 인식차이(%)

